

달아오르기 무섭게 식어버린 해금문인 복원열기

일부 문인에 편중된 현상... 독자들 외면에 출판사들 발간 꺼려

지난 10년 동안 출판을 통해 이뤄진 '해금문인'에 대한 복원 작업은 두가지의 뚜렷한 양상을 보여준다. '냄비 현상'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그것이다. 해금조치가 있었던 1988년을 전후로 남·월·재북 문인들의 작품집 출간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90년대 들어와서는 그런 열기가 차갑게 식어버렸다. 이런 현상은 양적인 측면에서 쉽게 확인되는데 80년대 3년간의 출판량이 90년대 9년간의 그것을 압도한다.

96년 이후 해금문인의 작품집 출간이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문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편중현상은 더욱 심화된 느낌이다. 중복출판된 일부 문인의 경우는 독자가 어느 책을 읽을지 고심할 정도지만, 문학사적인 평가를 받는 작가라도 전집은 고사하고 번듯한 선집 하나 없는 경우가 많다.

개인 전집은 '창비' '깊은샘' 주도

1988년 당국의 문인 해금 조치에 즈음해 이른바 '사회과학' 출판사들은 앞을 다투어 해금문인들의 작품을 수록한 전집을 기획했다. 도서출판 '세계'의 <한국근대 민족문학선집>과 '풀빛'의 <한국근현대 민족문학총서>가 대표적인 예다. 세계의 '선집'은 30권 짜리 기획이었으나 예정된 분량의 5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미완의 기획이기는 마찬가지지만 풀빛의 '총서'는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 조명희·임화·이기영의 작품을 의

주요 해금문인의 개인전집 및 선집

제목	펴낸 곳	출간연도
백석시전집	창작과비평사	1987
이용악시전집	창작과비평사	1988
오장환전집	창작과비평사	1989
김기림전집	심설당	1988
정지용전집	민음사	1988
이태준전집	깊은샘	1988
박노갑전집	깊은샘	1989
박태원전집	깊은샘	1989
조운문학전집	남풍	1990
함세덕문학전집	지식산업사	1996
박영회전집	영남대출판부	1997
백석전집	실천문학사	1997
홍기문	현대실학사	1997
조선문화론선집	현대실학사	1997
김태준	현대실학사	1997
문학사론선집	박이정	1998
안함광전집	박이정	1998

해금 조치 이후 남·월·재북

문인들의 작품집 출간으로

문학사의 복원은 풀리는 듯하나

아직도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면·복권은 이뤄지지 않은 현실이다.

권장도서 목록에 오르는 일은

'원천봉쇄' 된 형편이고, 교과서에조차

실리지 못해 그들에 대한 관심은

더욱 사라져가고 있다.

육적으로 퍼졌는데 특히 이기영의 경우는 <두만강>, <봄>, <고향> 같은 대표작을 펴내며 '이기영 선집'으로 탄 살림을 차릴 정도였다. 한편, 김남천과 한설야는 세계와 풀빛에서 모두 '발발' 됐다.

미완으로 그친 사회과학출판사들의 기획과는 달리 '을유문화사'의 <북으로 간 작가선집>(1988)은 10권이 한꺼번에 나왔다. 김남천·안희남·이태준·박태원·엄홍섭·박노갑·최명익·정인택·현덕·송영·허준·이석훈 등의 장·단편소설을 수록한 이 선집은 작가의 폭과 수록작품의 질 양면에서 수준급이었다. 을유문화사가 새로운 독서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해방 직후에서 6·25전까지 작가들과 쌓은 인연 때문. 을유문화사는 이태준의 <사상의 월야>를 비롯해 남·월북 작가들의 저서를 다수 출간한 바 있다.

90년대 초반 50명의 작가를 수록한 24권 짜리 <월북작가대표문학>(한국도서출판중앙회, 1991)이 선보였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지금은 대학원의 국문학 전공자들에게 덤핑으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다. 책 값은 3만원. 한권이 아니라 24권 한걸 가격이다.

해금문인의 개인전집은 '창작과비평사'와 '깊은샘'이 양분하고 있다. 한쪽은 시인을, 다른 쪽은 소설가를 주목한 점이 이채롭다.

창작과비평사는 <백석시전집>을 필두로 <이용악시전집>, <오장환전집> 등을 펴냈다. 이 중 전집 출간이 계속되고 있는 백석은 가장 행복한 작가라 할 수 있다. 백석 '매니아' 송준씨가 엮은 <백석시전집>(학연사,



1995)에 이어, 지난해에는 <백석전집>이 나왔다. 김재용 교수(원광대 국문과)가 엮은 <백석전집>은 산문과 해방 이후 쓴 시 작품을 망라하고 있다.

반면, 이용악은 약간 불행한 편이다. <이용악시전집>이 품귀 상태에 있지만, 어디서든 그의 책이 다시 나올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밖에 선집의 형태로 남·월북 시인의 작품이 묶여진 경우가 있다. '미래사'의 <한국대표시인 100인선집>(1991)에는 세사람의 낯선 시인이 등장한다. <붉은 아가씨 열매를>의 박팔양, <산제비>의 박세영, <태양을 등진 거리>의 설정식이 그들이었다.

이태준·박노갑·박태원 등 소설가의 전집을 펴낸 깊은샘은 해금문인의 복원 작업에 가장 적극적인 출판사다. 그런 점은 90년대에 다시 발간되고 있는 '이태준 문학전집'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전집은 <이태준 전집>을 토대로 새롭게 조판한 것이다. '전집'이란 명칭을 붙이지 않았지만 박태원 소설의 출간도 꾸준히 해왔다. 3권만 더 펴내면 '박태원 전집'은 얼추 완간되는 형편이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좀처럼 권장도서에 선정되는 일 없어

더구나 지난해 큰 기대를 걸었던 박태원의 <금은탑>이 참패를 당한 터라 출판사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깊은샘의 박현숙 대표는 "김남천 전집"을 만들고 싶다. 하지만 몇몇이나 팔릴지 의문이다. 이제는 하루빨리 해금문인에게서 벗어나고 싶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나마 정지용의 시를 모은 <향수>와 김기림의 시와 산

문을 엮은 <길>이 독자의 호감을 얻었던 것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오랜 동안의 단절에서 오는 낯설음은 해금문인의 작품을 권장도서목록에 올리는 것을 통해 해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원천봉쇄' 된 형편이다. 해금문인 관련 도서가 우수학술도서나 청소년권장도서로 선정되는 일은 좀처럼 보기 어렵다.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면·복권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90년대 초반 해금문인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시조시인 조운의 작품을 정리한 <조운문학전집>을 끝으로 해금문인에 대한 재조명 작업은 휴지기에 들어갔다. 물론 <임화신문학사>(한길사, 1993) 같은 단행본 차원의 복원작업은 드문드문 있었다. 해금문인에 대한 조명이 재개된 것은 <함세덕문학전집>이 발간되면서부터다.

함세덕은 1940년대 연극계를 풍미한 비중 있는 작가로 알려졌으나 '전집'이 나오기 전에는 희곡 작품 일부만 소개되었다. 91년 그의 대표작 <동승>이 무대에 올려져 관객의 감동을 자아낸 것을 생각하면, '전집'의 간행은 좀 늦은 일이다. <박영회전집>(영남대출판부, 1997)은 "얻은 것은 이데올로기요, 잃은 것은 예술"이라는 자아비판으로 유명한 고월 박영회가 남긴 글을 모았다. 최근 재북 평론가의 평론을 모은 <안함광전집>(박이정, 1998)이 나왔다. 그리고 97년 현대실학사에서 출간한 <홍기문 조선문화론선집>과 <김태준 문학사론선집> 또한 한국문학사의 '불거진 창'을 환히 밝혀주는 '등불'이다. <최성일>